

인구 6만2000명까지 늘린다

고창군, 실거주 미전입자 파악 통한 인구 유입 등 정책 행보 나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오는 2022년 인구 6만2000명 달성을 목표로 '함께 뛰는 고창, 고창사랑 인구 늘리기' 추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군은 저 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감소요인을 억제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인구 늘리기 추진계획을 펼쳐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군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시작과 더불어 타 지자체 보다 한발 앞선 인구 늘리기 정책 행보를 펼쳐 2016년 말 전년도 대비 551명이 증가한 인구수 6만597명을 지켜내며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인구 감소폭이 큰 농촌지역 중에서도 전국 군 단위 중에서는 손꼽히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탄력을 받아 올해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된 고용창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출산 환경 조성 △남녀노소가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인구 전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인구늘리기와 지키기'가 조화된 4대 주요 전략을 단기 및 중·장기 정책으로 나누어 인구 증대에 사활을 걸고 추진한다.

이를 위한 본격적 행보로 지난 3일 이길수 부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군청 2층 상황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특수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재산세 대상 상 주택과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상 호대사를 통해 실거주 미전입자 파악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세수확충,

출산 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등 총 21개 부서에서 27개 시책이 발굴됐다.

이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이달부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종합지원 시책을 망라한 지원요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길수 부군수는 "출산과 양육, 교육, 일자리 및 노후대책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인구 증대 정책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인구늘리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매월 시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는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은 성수면 삼봉리에 위치한 삼봉천이 신규 국가예산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임실군, 삼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선정

128억 3500만원 투입... 제방축제 · 호안정비 등 조성

임실군은 성수면 삼봉리에 위치한 삼봉천이 신규 국가예산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삼봉천 지방하천정비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28억3500만원(국비 64억1700만원, 도비 25억6700만원, 군비 38억5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구간은 성수면 양지리에서 삼봉리까지 2.9km로, 제방축제와 호안정비

및 교량 등 구조물이 조성된다.

그동안 삼봉천 일대는 하천 폭이 너무 좁아서 집중호우 때에는 침수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범람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군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먼저 착수했다.

기본 설계컨셉은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군은 사람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해서 지역의 색다른 하천 명소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도시문화 아카데미 사업 공모 실시

연극·문화 지도 만들기 등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시키는 '꿈' 사업과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하는 '도시문화 아카데미'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드는 '꿈'과 작년보다 새롭게 진행된 '도시문화 아카데미' 사업은 지난해 남원춤을 비롯해 연극(동원재판), 문화지도 만들기, 다양한 문화기획자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원 문화도시 특성화 분야인 '소리(사운드)문화'

라는 주제로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것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5개 내외의 팀(단체)을 공모 방식으로 선발하며, 전국의 소리(사운드) 관련 단체 및 개인과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가진 시민이 대상이다.

접수는 3월 9일부터 3월1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063-635-001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풀무원건강생활, 식문화기반조성 업무협약

순창군이 풀무원건강생활(주)과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을 위한 식문화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순창의 농·특산물 및 건강식문화 콘텐츠의 전국적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군은 6일 건강장수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국내 대표적 건강식품 회사인 풀무원건강생활(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황숙주 군수와 여익현 풀무원 건강생활(주)대표 등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양측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을 위한 식문화 관광 및 농촌 6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풀무원건강생활(주)측은 순창군 청정 농·특산물 및 농촌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전국적 홍보는 물론 교육생 모집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건강한 내몸다스리기' 체험프로그램 등 순창군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풀무원 전문 인력이 참여해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건강장수 콘텐츠 및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기반조성에 노력한다. 일환으로 우선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풀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당뇨예방식단 실습, 건강제조, 숲속트래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내몸 다스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2월까지 10회 정도 추진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원에활동생활화 연구회, 국화분재반 교육 실시

남원시민의 원에 연구모임인 원예활동생활화 연구회가 최근 국화분재반 교육을 시작으로 9개월간의 교육 일정에 들어간다.

원예활동생활화 연구회는 복잡한 현대 생활속에 힐링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화분재 재배 체험 통해 회원들이 식물과 소통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국화분재 교육반을 개설하였고 지난 8년간 매해 20회의 실습과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과정을 거친 많은 교육생들로부터 호응과 교육만족감을 받아왔다.

국화분재반은 올 2월초에 초급반 모집을 위해 인터넷공고를 하였고 신규 교육생 20여명을 모집하였으며 기존

교육생까지 백여명의 교육생이 단계별 3개반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수업 결과물로 시민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 해왔으며 작년 11월 '제6회 국화분재 전시회'는 이를 관람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생활분재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회원들의 자부심이 되었다. 올해 교육은 3월 첫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초 전시회까지 매 2주마다 수요일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과정이 끝나면 회원들이 각자 재배한 수업 결과물인 국화분재 화분과 조별 과제인 대문자, 현애, 임국 등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한 해 과정을 마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

임실군은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위해 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겨울철 이상 고온과 최근 개화철을 맞아 집단급식소 위생상태가 우려됨에 따라 식중독 사고발생 대응체계 정비 및 위생 취약업소 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위생관리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면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식자재공급의 적정성 및 보관방법 준수, 식품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무허가(신고)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현장지도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할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식자재보관, 조리시설 및 종사자 위생상태의 철저한 점검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중독 환자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상하면체육회, 회장이 · 취임식

고창군 상하면체육회가 최근 상하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의장과 관내 기관단체장, 체육회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임 임원진에 대한 공로패 증정, 이임사, 신임회장 취임사, 축사 순으로 이어 졌다.

이날 행사에 지난 2년 동안 상하면체육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제12대 이학영 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제13대 어수영 회장이 취임했다.

어수영 신임 회장은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상하면 대표선수로 활동했던 다양한 경험을 발판삼아 상하면민의 체력향상과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 활동은 물론 각종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협력해 활력이 넘치는 상하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상하면 체육회가 주민들의 건강증진, 체육복지 향상과 더불어 상하면과 고창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